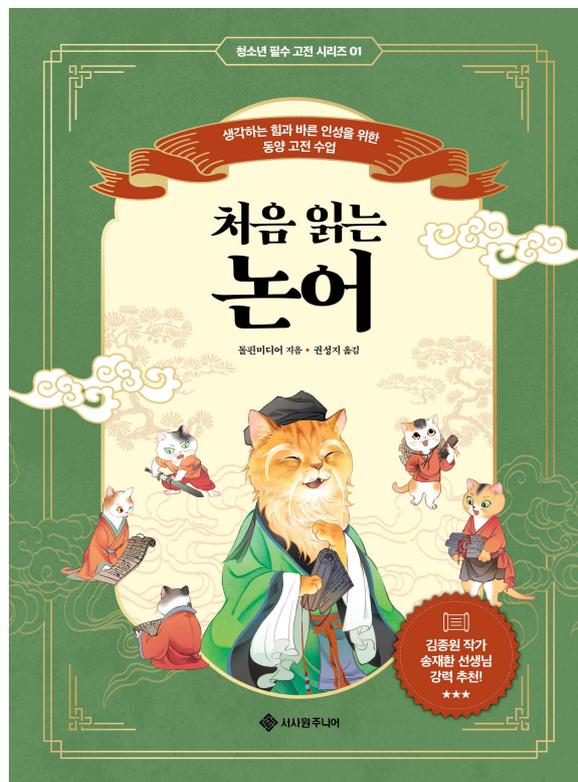


『처음 읽는 논어』 독서 활동지

작성: 권성지(웁긴이)

표지 관찰하기

책의 표지를 살펴보세요. 『처음 읽는 논어』에서는 주인공 공자가 고양이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눈에 비친 ‘공자냥’의 모습은 어떤가요? 표지에서 느껴지는 공자의 인상에 대해 여러분의 느낌을 떠오르는 대로 적어 보세요. 표지를 보고 알 수 있는 사실을 자유롭게 적어도 좋습니다.



예시) 손에 책을 쥐고 있는 것으로 봐서 글 읽기를 좋아하는 것 같다.

알아보기

공자와 『논어』에 대해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있나요? 책을 읽기 전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아래의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1. 공자는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을까요?

- ① 노나라
- ② 제나라
- ③ 당나라
- ④ 은나라

2. 공자의 본명은 무엇일까요?

- ① 공명
- ② 중니
- ③ 공구
- ④ 공리

3. 다음 중 공자의 직업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 ① 음악가
- ② 정치가
- ③ 건축가
- ④ 교육

◎ **독심 있는 정치가, 공자 : 화합과 타협을 구분하기 (본문 11쪽)**

이 장에 나오는 제경공과 노정공의 회담 이야기는 『논어』에는 없지만, 공자와 관련된 일화를 수록한 『공자가어』라는 책에 실려 있습니다.

[기억하기]

1. 제나라의 무례한 요구를 받은 노정공은 어떤 고민에 빠졌나요?
2. 제나라와 노나라 군주가 회담을 한 장소는 어디인가요?
3. 공자는 회담에 참여하기에 앞서 어떤 준비를 했나요?
4. 회담 자리에서 공자가 제나라 관리를 꾸짖은 까닭은 무엇인가요?

[생각하기]

1. 우리 주변에도 예의범절이 무너져 생기는 문제가 있지요. 일상생활 중 마땅히 지켜야 할 예절과 규범을 무시하여 불편함이 생기는 경우를 말해 봅시다.
2. 공자를 비롯한 제자백가 사상가들이 활동하던 춘추전국시대는 커다란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공자는 그러한 혼란을 바로잡을 해결책으로 ‘예’를 강조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도 춘추전국시대 못지않은 혼란의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사상가라면 어떤 가치를 강조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세요.

◎ 학습과 사고 : 둘 중 하나라도 빠뜨려서는 안 되는 법 (본문 23쪽)

이 장에는 공자가 ‘학습’과 ‘사고’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공자는 정치가, 음악가, 사상가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위대한 교육자였습니다.

[기억하기]

1. 노나라의 실권자인 계강자의 밑에서 일했으며, 특히 재정 업무에 강했던 공자의 제자는 누구인가요?
2. 공자가 중국 최초의 교육자로 평가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3. 32쪽을 참고해 공자가 말한 군자란 어떤 사람인지 빈칸을 채워 보세요.

“군자가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느냐?” 공자가 물었어요.
“어진 정치를 행하고 ()을 지키며, 사람들을 널리 ()하고 스스로를 ()하고 이겨 내는 사람이요.”

[생각하기]

1. 공부와 독서를 할 때, 여러분은 배우는 내용을 무작정 받아들이고 외우지는 않나요? 혹은 근거 없는 자신만의 생각에 빠져 있지는 않나요? 공부할 때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나쁜 습관은 무엇인지 돌아보고 개선할 점을 적어 보세요.
2.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는 것’과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위험할까요? 그 이유도 함께 적어 보세요.
3. 공자는 계씨 가문에서 일하는 염유의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지만, 훌륭한 제자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여러분 주변의 인물 중 하나를 골라 칭찬하는 글을 적어 보세요.

<보기>
“나의 제자 염유는 재주가 많고 정치 수완이 좋습니다. 대부 밑에서는 으뜸가는 직책을 맡을 수 있고, 제후 밑에서는 나랏일을 총괄하는 재상이 될 만하지요.”
예시) 나의 친구 OO은 ...

◎ 선의가 일을 가르친다 :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 남과 자신을 해칠 뿐 (본문 35쪽)

공자는 결코 고정된 지식을 학생에게 기계적으로 전수하는 선생이 아니었습니다. 제자의 성격과 특징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상황과 때에 맞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기억하기]

1. 한때 수탉 깃털을 머리에 꽂고 돼지 이빨로 장식한 칼을 찬 채 돌아다녔지만, 훗날 마음을 고쳐먹고 공자를 스승으로 섬긴 제자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2. 공자가 말한 ‘진정한 앎’이란 무엇인지 44쪽을 참고하여 적어 보세요.

[생각하기]

1. 내가 잘 모르는 내용에 관해 아는 척을 했던 적이 있나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때의 경험과 기분을 적어 보세요.
2. 공자는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진정한 앎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류의 스승으로 여겨지는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자신의 무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지요. 이들은 왜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용기를 강조했을까요? 자신의 무지를 깨닫는 것과 아는 척하며 살아가는 것 중 어느 태도가 더 바람직한지 생각해 보세요.

◎ **균자다운 다툼이란 : 다룰 때와 다투지 말아야 할 때를 아는 것 (본문 47쪽)**

이 장에는 쓸데없는 다툼을 피하고, 지나침을 경계하라는 공자의 가르침이 재미있는 이야기로 각색되어 있습니다.

[기억하기]

1. 지금까지 책을 읽었을 때, 공자의 제자인 자로는 어떤 인물인 것 같나요? 자로의 장단점을 구분해서 적어 보세요.
2. 57쪽에 나온 공자님의 말을 완성해 보세요.

“옳지. 그뿐 아니라 ()과 ()을 구분해야 참된 ()라 할 수 있어. 싸울지 말지는 자기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단다!”
--

[생각하기]

1. 공자가 생각한 이상적인 경쟁은 예의를 갖춘 활쏘기 시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경쟁은 무엇인가요?
2. 승부욕과 경쟁심의 긍정적인 면은 없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 보세요.
3. 경쟁을 하면서도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우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 보세요.

◎ 인, 공자가 말한 '사람다움'이란 : 혼탁한 세상에서 인간답게 살아가는 법 (본문 59쪽)

이 장에는 공자와 그의 제자 자장이 역사 속 인물을 평하며 나눈 대화가 실려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자가 생각했던 진정한 사람다움이란 무엇인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기억하기]

1. 자장이 초나라 영윤 자문을 훌륭한 위인으로 생각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2. '참된 사람다움', '어짚' 등으로 풀 수 있으며, 공자가 궁극적인 목표로 삼은 가치를 나타내는 한 글자는 무엇인가요?
3. 공자가 자문과 진문자에 대해 청렴하고 충직할지는 몰라도 '인(仁)'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평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4. 『논어』 「양화」 편에는 다음과 같은 자장과 공자의 문답이 실려 있습니다. 68쪽을 참고하여 다음 빈칸에 들어갈 덕목을 적어 보세요.

자장이 공자에게 인에 대해서 여쭙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다섯 가지를 천하에서 행할 수 있는 것이 인이다.” 그것이 무엇인지 여쭙자 이렇게 말씀하셨다. “()과 ()과 ()과 근면과 자애다. ()하면 수모를 당하지 않고, ()을 베풀면 사람을 얻는다. ()직하면 사람들이 신임한다. (중략)”

- 『논어』 「양화」 편

[생각하기]

1. 공자는 '사람다움'을 실천하는 것을 평생의 길잡이로 삼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치와 목표를 인생의 길잡이로 삼고 싶나요?
2.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사람'은 어떤 덕목을 갖춘 사람인가요? 5가지 덕목으로 인을 설명했던 공자처럼, 평소 여러분이 중요시하는 덕목 5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왜 그 덕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유도 적어 보세요. 표에 나와 있지 않은 덕목도 좋습니다.

정직	배려	책임	생명존중
성실	존중	정의	환경보호
절제	협동	준법	감사
용기	예절	봉사	평화
자존감	용서	애국심	나눔

◎ 공자, 설공을 만나다 : 꿈꾸는 사람은 언제나 젊다 (본문 71쪽)

이 장은 『논어』 「술이」 편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배움에 관련한 공자의 생각과 일화를 이야기로 엮어 냈습니다.

[기억하기]

1. 용을 좋아했다고 전해지는 인물로, 자로를 만나 공자에 대하여 소개해 달라고 부탁한 사람은 누구였나요?
2. 76쪽을 참고해 공자가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빈칸을 채워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될 것 아니냐. 스승님은 끼니도 잇을 만큼 ()에 열을 올리고, 깨달음을 얻으면 즐거워 ()()과 () 먹는 것도 잇는 분이라고!”

3. 공자는 제나라에서 ‘소’ 음악을 듣고 어떤 상태가 되었나요?

[생각하기]

1.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무언가에 푹 빠져서 열중했던 경험이 있나요? 그때 기분은 어땠나요?
2. 음악에 푹 빠졌던 공자처럼, 걱정과 근심을 잊고 몰입하여 배우고 싶은 것이 있나요? 여러분이 푹 배우고 싶은 것과 그 이유도 소개해 보세요.

◎ 공자, 가난을 딛고 일어난 성인 : 출신은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다 (본문 83쪽)

공자의 회고에 따르면, 공자는 여러가지 힘들고 굶은 일을 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낸 공자는 어떻게 위대한 성인으로 추앙받게 되었는지 살펴봅시다.

[기억하기]

1. 공자가 배움에 전념하기로 마음먹은 나이는 몇 살이었나요?
2. 공자의 아버지가 공자의 이름을 '언덕'이라는 뜻의 '구'라고 지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3. 어린 시절 공자가 겪었던 어려움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4. 다음 중 젊은 시절의 공자가 한 일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 ① 상갓집 일
 - ② 회계 일
 - ③ 가축 돌보는 일
 - ④ 병사가 되어 나라를 지키는 일

[생각하기]

1. '가난한 집 아이가 일찍 철든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2. 젊은 시절의 공자에게 본받고 싶은 점을 적어 보세요.
3.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적어 보세요. 그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성장의 기회로 삼을 방법은 없을까요?

◎ **자그마한 소망 : 때로는 소박한 소망이 가장 귀한 법 (본문 95쪽)**

『논어』 「선진」 편에는 공자와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포부를 이야기한 대목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꿈과 공자의 꿈은 어떻게 달랐는지 확인해 봅시다.

[기억하기]

1. 자료, 염유, 공서화가 품은 ‘큰 꿈’은 각각 무엇이었는지 정리해 보세요.

자료	
염유	
공서화	

2. 공자가 가장 감격하여 손을 맞잡은 제자 증석의 ‘작은 꿈’은 무엇이었나요?

[생각하기]

1. 여러분이 만약 공자의 제자라면, 공자에게 자신의 꿈을 어떻게 설명할지 적어 보세요.
2. 이야기 속 공자님과 달리, 꿈은 크면 클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꿈은 크게 가지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만족을 알고 기대를 적게 하는 편이 좋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 공자의 애제자, 안회 : 욕망을 절제하고 예로 돌아가기 (본문 107쪽)

『논어』에는 공자가 제자들에게 대해 남긴 평가가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안회는 짧은 삶을 살다 갔지만 공자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제자였습니다. 안회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공자가 안회에게 일러 준 ‘인’은 무엇인지 알아보시다.

[기억하기]

1. 113쪽을 참고해 공자가 안회와 제자들에게 일러준 ‘인’이란 무엇인지 빈칸을 채워 보세요.

“인, 즉 ‘참된 사람다움’이란 사실 간단하단다. 자신을 ()할 줄 알며 ()에 어긋나는 것은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행동에 옮기지도 않는 것이다.”

2. 안회는 어떤 태도로 공자의 가르침을 배우는 제자였나요?

3. 사자성어 ‘단사표음’의 뜻이 무엇인지 적어 보세요.

4. 116쪽을 참고해 빈칸을 채워 안회에 대해 공자가 평가한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남에게 ()하지 않고, ()을 반복하는 법이 없는 제자였지요. 유일한 단점을 꼽자면 너무 짧은 삶을 살다 갔다는 것입니다.”

[생각하기]

1. 『논어』에는 가난에도 불구하고 즐거움을 잃지 않았다는 공자의 말도 실려있습니다. “거친 음식과 물로 식사를 하고 팔을 베개 삼아 눕는 것, 즐거움이 그 안에 있다.” 여러분은 돈과 즐거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즐거운 삶을 사는 데 돈은 꼭 필요한 걸까요?

2. 여러분이 절제하기 가장 힘든 욕심이나 습관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이겨낼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적어 보세요.

◎ **관중, 나쁜 사람 같은 좋은 사람(상) : 사람을 평가할 때는 큰 그림을 보아야 한다** (본문 119쪽)

관중, 나쁜 사람 같은 좋은 사람(하) : 결국 최종 판단은 각자의 몫 (본문 131쪽)

가난했던 관중은 친구 포숙아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상의 자리에까지 오릅니다. 현명한 재상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긴 관중, 그러나 그의 인품에 대해 공자와 자로는 상반된 견해를 보입니다.

[기억하기]

1. 포숙아는 가난했던 관중을 어떻게 도와주었나요?
2. 싸움터에서 용맹하게 돌격했던 포숙아와 달리 관중이 항상 목숨을 아꼈던 까닭은 무엇인가요?
3. 자신이 모시던 공자규가 제환공에게 죽자, 관중은 어떤 선택을 하였나요?
4. 관중이 재상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인가요?
5. 자로와 제자들이 관중을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이라 비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6. 관중이 포숙아가 재상이 되는 것을 반대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7. 관중과 포숙아의 우정을 의미하는 사자성어를 적어 보세요.
8. 공자가 생각한 관중의 잘못은 무엇인가요?

[생각하기]

1. 친구의 단점 하나만 보고 사람 전체를 판단했던 경험이 있나요? 그때를 돌이켜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2. 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나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을 적어 보세요.
3.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우정은 무엇인가요?

◎ 내려놓을 용기 : 실패에도 용기가 필요하다 (본문 143쪽)

공자가 고향 노나라를 떠나 14년간 유랑을 하게 된 배경과 그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을 살펴봅시다.

[기억하기]

1. 공자가 노나라를 떠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2. 공자가 노나라를 떠나 여러 나라를 유랑하며 겪은 어려움은 무엇이었나요?
3. 공자 일행이 정나라에서 길을 잃고 흩어졌을 때, 사람들은 공자를 무엇에 빗대어 비웃었나요? (4글자)
4. 경쇠를 연주하던 공자에게 벽 너머의 사내가 건넨 조언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생각하기]

1. 어떤 일에 너무 집착하다가 오히려 일을 그르친 적이 있나요? 그때의 경험을 적어 보세요.
2. 현재 나의 마음대로 풀리지 않아 속상한 일이 있나요? 어느 정도 기대를 낮추고 욕심을 내려놓으면 어떨까요? 공자에게 조언을 건넨 벽 너머의 사내처럼, 여러분 자신에게 건네는 조언의 말을 적어 봅시다.

◎ **공평한 선생님, 공자 : 차별하지 않는 평등교육의 선구자** (본문 155쪽)

공자는 신분에 상관없이 제자를 받았을 뿐 아니라, 자신의 외아들에게도 사심 없이 제자들과 동일한 가르침을 펼친 교육자였습니다. 이 장은 공자의 아들 백어와 제자 진항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엮어 선생 공자의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기억하기]

1. 공자의 제자 중, 육예에 통달한 72명을 일컫는 말은 무엇인가요?
2. 진항이 백어에게 접근하여 확인하고 싶었던 ‘비밀’은 무엇이었나요?
3. 공자가 외아들 백어에게 마당에서 일러준 두 가지 공부의 핵심은 무엇인지 고르세요.
 - ① 시경
 - ② 수학
 - ③ 예법
 - ④ 주역

[생각하기]

1. 춘추시대를 살았던 공자는 『시경』과 예법 공부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로부터 2500년이 지난 오늘날, 여러분이 보기에 가장 중요한 공부는 무엇인가요?
2. 이 이야기에 따르면 공자는 제자들을 사심 없이 대하는 공평한 선생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선생님은 어떤 사람인가요? 지금까지 만나 본 선생님 중 가장 좋았던 분의 특징은 어땠는지 적어 봅시다.

◎ 자유, 소 잡는 칼로 닭을 잡다 : 작은 일도 소중히 여겨야 큰일을 이룬다 (본문 167쪽)

고대에 백성들은 통치의 대상일 뿐, 결코 교육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고을 무성의 지방관이 된 자유가 백성들에게 음악을 가르친 깊은 뜻을 이해해 봅시다.

[기억하기]

1. 오나라 출신의 제자로서 글솜씨가 뛰어났으며, 무성의 지방관을 맡은 사람의 이름은 무엇 인가요?
2. 무성에서 백성들이 연주하는 현악기 소리를 듣고 공자 일행이 보인 반응은 어땠나요?
3. 자유가 백성들에게 음악과 예법을 가르친 까닭은 무엇인가요?

[생각하기]

1.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경험이 있나요?
2. 공자는 덕을 갖춘 정치인이 은혜를 베풀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것 이라 보았습니다. 정치에 있어 엄격한 법보다 도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하지 만 이와 반대로 강제력이 있고 공평무사한 법이 중요하다고 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치가라면 도덕과 법 중 어느 것을 더 강조하고 싶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자공, 외교의 천재(상) : 궤와 지략은 위기가 닥쳤을 때 빛난다 (본문 179쪽)

자공, 외교의 천재(하) : 탁월한 계략이 천 리 밖 전장을 주무른다 (본문 191쪽)

자공은 공자의 신임을 받았을 뿐 아니라, 공자를 가장 마지막까지 모신 제자입니다. 자공은 특히나 말솜씨와 외교 실무에 뛰어났다고 전해집니다.

[기억하기]

1. 제나라의 실권자 전상이 노나라를 공격하여 전쟁을 일으키려 한 진짜 속셈은 무엇인가요?
2. 공자가 노나라를 구할 책임자로 자공을 지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3. 월나라 왕 구천이 오나라를 돕는 척하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는 고사성어는 무엇인가요?

[생각하기]

1.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재능을 보탬 수 있을까요?
2. 공자는 뛰어난 재능을 지닌 자공을 일컬어 '제사에 쓰이는 귀한 그릇(호런)'이라고 평했습니다. 여러분 주위의 소중한 사람을 한 명 고른 후, 공자처럼 물건에 빗대어 평가하는 글을 적어 보세요.

[기억하기] 정답

2쪽

1. ①
2. ③
3. ③

3쪽

1. 제경공의 회담 제의를 받아들일지 말지 고민에 빠졌다.
2. 협곡
3. 회담 자리에 동행할 문신과 무신을 뽑고, 만일에 대비해 군사도 준비하였다.
4. 춤과 음악 공연을 핑계로 회담 자리에 무기를 든 악사들을 불러들였으며, 노정공을 제후로서 존중하지 않고 업신여겼기 때문이다.

4쪽

1. 염유
2. 당시 배움은 귀족에게만 허용되었으나, 공자는 신분에 상관없이 제자들을 받아들여 가르쳤기 때문이다.
3. 도덕 / 사랑 / 절제

5쪽

1. 자료
2. 아는 것은 안다고 말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며, 실수를 인정하는 것.

6쪽

1. '성격이 급하지만 실천력이 뛰어나다', '솔직하다' 등
2. 다뤄야 할 일 / 다루지 말아야 할 일 / 군자

7쪽

1. 높은 자리에서 세 번 내려왔지만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맡은 업무를 꼼꼼히 정리하여 후임자에게 전달했다.
2. 인
3.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여 명성을 지켰을 뿐, 공손, 관용, 믿음, 근면, 자애를 실천하지 않았다.
4. 공손 / 관용 / 믿음 / 공손 / 관용 / 믿음

8쪽

1. 섭공
2. 깨달음 / 근심 / 걱정 / 나이
3. 석 달 동안 고기 맛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음악에 열중하였다.

9쪽

1. 열다섯 살.
2. 정수리가 움푹 들어가고 그 주위는 불룩 튀어나와 있었기 때문이다.
3. 아버지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가난에 시달리며 살았다.
4. ④

10쪽

- 1.

자로	아무도 나라를 침범할 마음을 못 먹게끔 군대를 기르고, 백성들에게 도덕과 정의를 가르치는 것.
염유	경제와 민생을 안정시켜 부유한 나라를 만드는 것.
공서화	종묘의 제사를 담당하는 것.

2. 농사일이 한가할 때 어른과 어린이가 함께 어울려 강가에서 떡을 감고, 즐겁게 놀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

11쪽

1. 절제 / 예법
2. 배움이 끝난 뒤에도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스승의 곁을 지켰으며, 배운 내용을 묵묵히 익히고 응용하는 제자였다.
3. 대나무 그릇에 밥을 담아 먹고, 표주박으로 물을 떠 마신다는 뜻으로, 청렴하고 소박한 삶을 나타낸다.
4. 화풀이 / 같은 잘못

12쪽

1. 함께 사업을 벌였고, 수익금을 관중에게 더 많이 나눠 주었다.
2. 집에 계시는 나이 든 어머니를 걱정했기 때문이다.
3. 공자규를 따라 자결하지 않고, 제한공을 도와 재상 자리에 올랐다.
4. 포숙아가 관중을 추천해줬기 때문이다.
5. 자신이 모시던 주군을 따라 죽기는커녕, 원수인 제한공 밑으로 들어갔다. 이후 자신을 도와준 친구 포숙아가 재상 자리에 오르는 것을 반대하였다.
6. 재상의 역할을 하기에는 포숙아가 너무 올곧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7. 관포지교
8. 검소하지 못했고, 군주에 대한 예의가 없었다.

13쪽

1. 노나라에선 자신의 이상을 펼치지 못하리라 생각했다.
2. 위나라에서 모함과 감시를 받았다.
진나라로 향하는 길에 군중에게 포위당했다.
송나라에선 죽을 위기를 겪었다.
십 수년간 제후국을 돌아다녔지만 이상을 펼쳐 줄 군주를 만나지 못했다.
3. 떠돌이 개
4. 불가능한 일에 메달리지 않고 고집을 꺾는 것

14쪽

1. 칠십이현
2. 공자가 외아들에게만 특별히 가르쳐 준 내용이 있는지 알아내려고 했다.
3. ①, ③

15쪽

1. 자유
2. 농사나 지어야 할 백성들에게 음악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3. 백성들이 웃어른과 관리를 존경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16쪽

1. 귀족 세력의 군사력을 약화시킨 뒤 제나라의 정권을 손에 넣기 위해서이다.
2. 정치, 외교 방면에서 자공의 능력과 재능이 가장 뛰어났기 때문이다.
3. 와신상담